

국민의당 개혁신당 “교섭단체 문제없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킴이운동본부 조배숙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개혁신당 창당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욱(왼쪽 세번째 부터)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 박지원, 천정배, 박주현 의원, 조배숙 대표, 최경환, 정동영, 유성엽 의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해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 국민의당 의원들이 총 18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혁신당 창당에 함께 하는 원외 지역위원장도 33명 규모임을 전하며 본격적 세 과시에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을 안건으로 한 전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었다.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는 21일 오전 11시께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28일 개혁신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를 열 것을 공식화했다.

이번 창추위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측은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의원 등이다.

창추위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 피랍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남북화해협력으로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초

통합 반대파 총 18명...원외 지역위원장도 33명

오는 28일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 열 것 공식화

불명명의 적폐청산·국가개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개혁신당 창당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며 “발기인대회를 통해 개혁신당의 비전과 목표, 함께 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창추위는 조 의원을 대표로 인제 영인위원장 장병완·유성엽, 창당기획단장 김경진, 조직위원장 김종회, 홍보위원장 박주현, 정강정책위원장 윤영일, 공동대변인 최경환·장정숙 의원 등을 선정한 상태다.

창추위의 전신인 국민의당지킴이운동본부는 당초 통합 전당대회 저지를 1차 목표로, 개혁신당 창당을 2차 목표로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통합 선언으로 개혁신당 창당 추진에 속도를 더욱 실은 모양이다.

창추위는 사실상 양당 통합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전당대회 총력 저지라는 목표를 지속할 것을 밝혔다.

조 의원은 “2월4일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연합 합당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그럼에도 끝내 강행한다면 공비로 2월5일과 6일 오전에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2월6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를 결성하고 당 조직을 선거위원회체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며 “8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시·도당 창당을 본격 진행하고 당명공모도 시작할 것임을 강조했다.

시·도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서울 정호준 경기 부지현, 인천 허영, 대전 고무열, 충남 김현식, 전북 김중희, 광주 최경환, 전남 정인화 등이다. 당명공모는 앞서 밝혔던 대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개혁신당은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개편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혁명에 앞장서는 선도정당이 되겠다”며 “창당 발기인과 당원 공개모집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면 누구라도 신당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 대표가 개혁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 당을 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창추위 차원의 반박도 있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안 대표) 본인이 먼저 해당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반대가 강력하니까 어떻게든 전당대회를 강행하려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23곳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대표당원 모수를 줄이기 위해 전화 5번을 받지 않으면 대표당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등 여러 편법을 동원했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는 의원이 20명이 되지 않아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는 질문에 조 의원은 “저희는 연언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당이 출범하면 합류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교섭단체 달성도 무난하리라 본다”고 자신했다.

박주선 의원 등 당내 중재와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 조 의원은 “이용호, 황주홍, 손금주 의원 등은 지금 본인들의 중재인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데 대한 깊은 절망감을 토로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적절한 시기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 경기 수원 W컨벤션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하례 도중 최근 북망한 남경필 경기지사를 무대로 불러 올려 인사시키고 있다.

홍준표, 남경필·김세연 품은 이유는?

지방선거 인재난에 거부했던 인사들 품은 분위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 후보난으로 인해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 한때 북당을 거부했던 인사들을 품은 모양이다. 특히 공공연하게 특정 인사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냈던 홍 대표가 그들에 대한 북당환영의 뜻까지 밝혀 눈길을 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탈당한지 1년 2개월 만에 바른정당에 합류한 남 지사를 무대로 불러올려 “자, 우리 과거는 묻지 말자. 이제 문재인 좌파독재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배신자’를 이라고 매도하지 말자”며 “남 지사는 모든 방면에서 대한민국의 차세대 지도자”라고 칭찬했다.

이러한 후호적인 홍 대표의 태도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 지사는 절대 한국당에 돌아올 수 없는 인물”이라고 언급하며 거부 반응을 보인 것에서 상당히 변화를 보인 것이다.

김세연 의원도 지난 9일 바른정당 탈당과 한국당 북당을 선언했다. 홍 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누구에게나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다”며 “우리 한국당은 들어오려는 분을 배척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고 김 의원의 북당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홍 대표는 재산이 1500여억 원인 김 의원이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한국당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그간 회의적이었던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전라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는 15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 경선을 이야기한 것은 현역 시장을 제압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봄을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것”이라며 “의미없는 경선을 하는 것은 지지를 제고에 도움도 안 되고 이같은 후보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기존에 주장했던 전라공천방식을 시사했다.

이 발언으로 부산시장 전라공천 대상이 홍 대표가 고려하던 대상에서 서 시장쪽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홍 대표의 태도 변화는 최근 장제국 동서대 총장 홍정욱 전 의원,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당 안팎에서 후보군이 부재하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완료 시점을 최대 3월말로 보고 있다. 올림픽 기간을 제외하면 무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다.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후보군을 모아 심사해야 한다.

또 김 의원 경우 지방선거 후보군이 아니더라도 조직세가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홍 대표는 일찍이 “지방선거 17곳 중에서 6곳을 못 이기면 집으로 간다”고 배수진을 쳐놓은 상태다. 따라서 사감(私感)을 배제하고 당으로 몰리는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뉴스스

민주당 “MB, 참모 조연대로 국민에 이실직고해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은 참모의 조연대로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이실직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21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20~30명 대책회의의 멤버들은 김 전

부속실장의 인터뷰를 보고 들었으면 그동안의 허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은 성역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안보 예산 사적 유용 혐의의 진모를 파헤치는데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부속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검찰 수사가 워낙 탄탄해 부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

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전한 바 있다.

김 전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전에 보고했고 국정원 특활비가 자신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에 전달됐으며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11년 국정원 직원으로 부터 1억원 상당을 미화물 받아 이

중 3000만~4000만원 정도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이에 “(김 전 부속실장) 참모로서 이 전 대통령이 실토하려던 공개 조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한보를 그렇게 강조하던 이 전 대통령의 안보는 국정원의 안 보이는 돈을 쓰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견뎌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 했던 점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